

# ‘SBS 사내맞선’ 윤상정, 할 말은 하는 MZ세대 직장인 연기

‘사내맞선’서 김혜지 역 맡아 열연  
“김혜지는 감정에 솔직한 캐릭터”

신인 배우 윤상정(24)은 세 작품 연속 직장인을 연기한다. 드라마 ‘그해 우리는’의 홍보사 직원, ‘사내맞선’ 식품회사 연구원, 곧 방송될 ‘별풍별’에선 엔터사 직원을 맡는다. 그는 SBS TV 월화드라마 ‘사내맞선’의 ‘김혜지’가 ‘MZ세대 직장인’이라고 했다. “혜지는 주변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곤란한 질문도 그냥 해버린다. 감정에 솔직한 면이 좋았고 연기할 때도 재밌었다”며 웃었다.

‘사내맞선’은 회사 사장 ‘강태무’(안효섭)와 맞선녀 직원 ‘신하리’(김세정)의 오피스 로맨스다. 재벌 3세, 캔디형 여주인공, 계약 연애가 등장하는 클리셰 범벅이었지만, 로맨스와 코미디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해 호평받았다. 윤상정은 코믹 부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혜지는 떠오르는 모든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직장 상사 앞에서 술주정하고, ‘강다구’(이덕화) 회장의 머리가 진짜 가발이냐고 물었다. 청심환 과다 복용으로 뱃을 잃기도 했다. 미워할 수 없는 김혜지 캐릭터는 극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분 좋은 웃음을 선사했다.

“혜지는 정말 감정에 솔직한 인물이에요. 하는 생각이 어떤 방식이든 다 표현돼요. 가끔은 필터링 없는 혜지를 보고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저는 늘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거든요. 연기하면서 늘 ‘내가 혜지라면 어떻게 생각했어. 예전에 학원에서 일했는데 회사 생활과 조금은 비슷해요. 그때 어떤 업무를 했고, 상사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렸어요. 일부터 웃음소리가 더 크게 내보고 혜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혜지는 MZ세대 직장인에 가장 걸맞은 인물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혜지가 마냥 가벼운 캐릭터는 아니다. 팀원 하리가 애인 있는 남자를 넘겼다. 루머로 힘들어할 때 단단하게 식품개발 1팀을 지켰다.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회사 직원들에게 따끔하게 일침하고 하리를 감쌌다. 그는 “우리끼리는 욕해도 괜찮지만 남이 욕하는 건 못 참겠다”는 대사가 와닿았다. 다른 팀이 하리를 욕할 때 혜지가 한 말이다. 실제로도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더 인상 깊었다”고 털어놓았다.

하리를 연기한 김세정은 좋은 동료이자 리더였다. 그는 “(세정) 언니가 정말 많이 격려해 줬다. 촬영 전 긴장하고 있을 때 먼저 와서 ‘잘하고 있다고 있다’고 응원해 줬다. 같이 연기 방향을 고민해 주고 제 이야기도 잘 들어줬다.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자세하게 알려줬다”고 회상했다. 가장 많은 호흡을 맞춘 ‘게차장’(임기홍), ‘여 부장’(김현숙)도 좋은 톨모텔이었다. 강한 인상을 남긴 코믹신도 선배들의 아이디어와 애드립으로 나왔다.

“여 부장님과 게 차장님이 귀속말할 때 혜지가 신경질내는 장면이 있었어요. 리허설에서 연기 합을 맞춰볼 때 더 극적으로 싫어하면 재밌겠다고 하셨어요. 또 엘리베이터에서 태무를 만나고 놀라 뛰어내리는 장면을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지 여쭙었는데 작은 실수를 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혜지라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요. 혜지가 ‘안녕하세요’ 외치며 내리는 장면은 그렇게 탄생했어요. 회식에서 혜지가 태무에게 ‘뽕이버섯이 타는데요’라고 하는 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내맞선’은 1회 시청률 4.9%(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로 시작해 최종회인 12회를 11.4%로 끝냈다. 5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드’에 따르면, ‘사내

맞선’은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2위를 차지하며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사랑받았다. ‘사내맞선’이 국내의 흥행에 성공한 만큼 그도 출연 전후 차이를 실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응원 댓글이 확실히 늘어났어요. 다들 ‘혜지 씨 힘내라’고 하세요. 식품개발 1팀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반응도 기분 좋았어요. SNS 팔로워도 늘었는데 가장 신기한 건 외국어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 영어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 분들이 댓글을 남겨 줬어요. ‘사내맞선’이 정말 여러 곳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번역기로 댓글 내용을 해석할 때마다 즐거웠어요.”

윤상정은 2014년 영화 ‘채워라 60시간!’으로 데뷔했다. 이후 ‘놀이공원’(2015) ‘까치까치 설날은’(2017) ‘선아’(2017) ‘Daydreamer’(2018) ‘그녀의 썸’(2018) 등 단편·장편 영화에서 크고 작은 배역을 맡았다. 웹드라마 ‘짧은대본’(2018) ‘작가실종사건’(2021)에서 내공을 쌓고 같은 해 ‘너는 나의 봄’(2021) ‘그해 우리는’(2021~2022)을 찍었다. ‘사내맞선’ 촬영 종료 후 바로 ‘별풍별’에 합류해 열일 중이다.

“웹드라마에서 정극으로 넘어오면서 점점 연기가 발전했다고 느껴요. 어떤 촬영이든 많이 긴장하는 편인데 스스로 편해지는 법을 찾고 있어요. 원래 긴장되면 혼자서 생각하는 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 많이 나누려고 해요. 감정을 공유하다 보면 어느새 긴장이 풀어질 때도 있어요. 그걸 알고 난 뒤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예술고등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대학도 연극영화과에 진학했지만 법학부로 다시 편입했다. 배우가 연기를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해 일반 학교에서 연극영화과로 옮기는 경우는 봤어도 그 반대는 생소하다. 편입 이유는 다양한 직업과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했다.

“대학에는 여러 학과가 있었어요. 전공만



크게 다양하게 배우보고 싶었어요. 꿈이 변했다기보다는 학문에 대한 궁금증이 컸어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계약서 하나 쓸 때도 근로기준법을 알아야 하잖아요. 언젠가는 법조계를 다룬 작품에 꼭 출연하고 싶어요. 안 그래도 넷플릭스 ‘소년심판’을 정말 재밌게 보

고 있어요.”  
2014년부터 연기를 시작했지만 이제 차츰 얼굴을 알리고 있는 단계다. 그는 자신의 강점을 ‘버려내는 힘’이라고 했다. “작품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직업이잖아요. 저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건터낼 힘이 있어요.”

## 홍콩대 강수정, 4년만 MC 복귀



홍콩대 강수정이 tvN 신규 건강 정보 프로그램인 ‘70억의 선택’ MC로 복귀한다. 28일 오전 9시에 첫 방송되는 ‘70억의 선택’은 전 세계인의 다양하고 이색적인 건강 비법을 알아보는 신개념 건강 프로그램이다. 각국의 건강 비결을 토크를 위해 인도의 락

tvN ‘70억의 선택’ 오는 28일 방송

키부터 미국의 칼, 프랑스의 사라, 폴란드의 프세르, 아프가니스탄의 비다, 가나의 글라디스까지 각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패널들과 함께 의학 전문 기자 홍혜걸,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지혜, 한의사 신동진이 문체 글로벌 건강 트렌드에 대해 집중 분석한다.

강수정은 황제성과 함께 ‘70억의 선택’ 공동 MC를 맡아 유쾌한 시너지를 예고한다.

MC로 낙점된 강수정은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지난 2008년 홍콩 금융계 포 먼드매니저와 결혼 후 홍콩에서 지내다 최근 한국 입국 소식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방송을 앞두고 공개한 티저 예고편에서도 특유의 밝고 파이팅 넘치는 강수정의 진행을 엿볼 수 있다.

## ‘살인자의 쇼핑목록’ 살인사건 중심에 선 이광수



‘살인자의 쇼핑목록’ 메인 예고 영상이 공개

오는 27일 tvN 첫 방송

됐다.

tvN ‘살인자의 쇼핑목록’측은 8일 이광수(안대성 역), 김설현(도아희 역), 진희경(한명숙 역)이 의문의 살인사건에 얽히게 되는 메인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영상에서 아파트 문고리에 걸려있는 MS마트 봉투가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후 봉지를 들고 MS마트를 찾은 단골고객 권소현(경아 역)가 겁에 질린 채 “여기 배달하는 사람 누구예요? 시키지도 않은 물건을 왜 저주 갖다 놔요?”라며 울음을 터트려 긴장감을 자아낸다.

특히 권소현의 초췌한 얼굴과 함께 마트 직원들이 그녀가 갖고 온 봉투 안의 물건을 확인

하더니 경악을 금치 못해 궁금증을 유발한다. 이와 함께 마트를 둘러싼 살인사건이 발생해 시한폭탄급 파장을 예고한다.

특히 이광수의 비상한 기억력 덕분에 용의선상에 올라 강도 높은 심문을 받게 되고, 이에 그의 엄마가 “내가 나대지 말라고 했지?”라며 호되게 나무라고 있어 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 처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이에 가만히 있을 그가 아니다. 특유의 오지랖을 발휘, 여자친구이자 순경 김설현과 의기투합해 살인사건을 수사하기에 이른다.

그런 가운데 영상 말미에 이광수는 “범인은 마트 안에 있을지도”라며 마트 직원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며 예측불가의 전개를 기대하게 한다.

4월 27일 오후 10시 30분 첫 방송.

## 뺨 때린 윌 스미스, 10년간 아카데미 금지

“수상은 박탈하지 않아”

할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54)가 10년간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8일(현지시간) 이사회를 열고 스미스에게 10년간 시상식 참석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아카데미는 성명을 내고 “오스카 시상식은 한 해 동안 놀라운 일을 해낸 우리 업계 많은 사람을 축하하는 자리”라며 “스미스가 용납할 수 없고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스미스는 “아카데미 결정을 받아들이고 존중한다”고 했다.

스미스는 지난달 27일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코미디언 크리스 록 뺨을 때렸다. 부인 제이디 핑킷 스미스(51)가 탈모증으로 삭발했는데, 록이 농담하자 격분했다. 스미스는 “선을 넘었고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다. 아카데미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스미스는 회



원 자격을 스스로 반납했다. 아카데미는 스미스의 수상을 박탈하지는 않았다. 올해 영화 ‘킹 리처드’(감독 레이날도 마르쿠스 그린)로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받았지만, 내년 시상자로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 이효리, 박나래 자책에 위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티빙 오리지널 ‘서울체크인’

가수 이효리가 개그우먼 박나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8일 방송된 티빙 오리지널 ‘서울체크인’에서 1회에서는 서울에 도착한 이효리가 결혼과 일 사이에서 갈등하는 후배 박나래를 만나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했다.

박나래는 “언니가 36세에 결혼을 했는데 정말 젊은 나이에 갔다”면서 “일을 쫓아가는 게 맞는 건지 좋은 남자 만나는 게 맞는 건지”라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아끼 생각까지 하고 있는 박나래에게 이효리는 “결혼해도 돼, 결혼해도 일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라며 용기를 북돋아줬다.

또한 박나래가 일련의 일들로 자책하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라며 진심 어린 공감을 전했다. 지난해 박나래는 웹 예능에서 남성 캐릭터 인형을 두고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위로가 오갔던 하룻밤을 보낸 뒤에도 진지한 대화는 이어졌다. 박나래는 “망가지는 게 정말 좋은데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상처를 꺼냈다. 이효리는 “직업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다”라며 SNS 계정 삭제까지 고민하는 박나래에게 “힘들면 비공개 했다가 마음이 편찮으면 공개하면 된다. 나를 보호하는 거다”라고 했다.

아쉬운 서울 나들이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이효리는 박나래를 따뜻하게 끌어안고 “지금 잘하고 있어”라는 응원했다. 동경하던 언니의 진심 어린 응원은 박나래는 눈시울을 적셨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이효리는 ‘제주 효리’에서 ‘서울 효리’로 변신해 반전 매력을 뽐낸 포스터 촬영부터 동료 연예인 비, 홍현희와 만나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며 소소한 시



간을 보내는 일상이 그려졌다. 뉴스스